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1월 10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출애굽기 19장 1-4절

설교제목 : “성숙의 길 (안식)”

성숙의 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안식이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거룩입니다.(2절) 거룩이란 어떤 holy한 상태적 언어라기보다는 관계적 언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holy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성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속하였으니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서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명합니다.(신5:1)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신5:2)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세대와만 하신 언약이 아닙니다.(신5:3) 뉴 이스라엘인 우리와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3절 상반절을 봅시다. **레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먼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제 5계명은 대인관계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즉 이웃사랑의 계명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한마디로 **이웃사랑**입니다. 그리고 4절을 봅시다. **레 19: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은 대신 계명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연관된 계명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룩, 곧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십계명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영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구조 속에 담아두신 말씀입니다. 앞서, 3절과 4절 사이의 말씀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조 가운데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십계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까?** 우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유래는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두고 있습니다.(출20:8-11)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따라서 이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 역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쉰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입니다. 주목할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창조의 원리에서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는 날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신5:13-15) 그런데 **안식일 규례의 핵심이 무엇인가가 주목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핵심규례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출20:10와 신 5:14) 이것이 얼마나 강조되었느냐면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출31:15)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강도 높게 명령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우리의 노동 즉 일함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는 선포적 차

원의 안식입니다. 결국 일하지 않고, 안식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12:8)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댓가, 즉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는 참된 안식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공동체는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부활의 날, 즉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역시 안식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데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는 ‘사바트’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안식일은 그치는 날, 중지하는 날입니다. 노동을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한다고 하면 무조건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고 푹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정확하게 노동 즉 생업을 그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노동, 생업을 그칩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6일 동안 밥벌이해서 먹고 사는 생업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먹이심과 살피시는 은혜 때문에 산다는 고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일에 생업을 중단함으로써 그 고백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업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주일에도 결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일도 안하고,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업을 중단함으로써 내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생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안식의 신앙으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와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를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누어 봅시다. 안식의 의미대로 주일을 온전히 보내려면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할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